

# ‘건설업 산증인’ 중흥그룹 창업주 정창선 회장 별세



## 주택사업 기반 원칙·책임 중시한 ‘신뢰 경영’ 강조 대우건설 인수 등 토목·레저·미디어로 사업 확장

중흥그룹 창업주인 정창선 회장이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4세. 정 회장은 지난 2일 오후 11시 40분께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했다. 광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1983년 광주·전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중흥주택을 설립

해 국내 대형 건설그룹으로 성장시킨 ‘입지전적인 기업인’이다. 평생을 건설산업에 몸담으며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토목, 레저, 미디어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다. 정 회장은 경영 전반에서 무리한 외형 확대보다는 재무 건전성과 사업 안정성

을 중시하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건설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도 단계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그룹의 기반을 다져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2021년 대우건설 인수 이후에도 중흥그룹은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을 병행하며 무리한 사업 확장보다는 단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초점을 맞추며 안정적인 경영 기조를 유지해 왔다.

정 회장은 2018년 3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활동했으며, 같은 해 3

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맡아 지역 상공인과 기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05년 주택건설의 날 동탑산업훈장, 2017년 제70회 건설의 날 건설산업발전 공로상, 같은 해 광주시민대상(지역경제진흥대상) 등을 수상했다.

정 회장은 평소 언론 노출을 자제하며 실무 중심의 경영을 이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내부적으로는 원칙과 책임을 중시하는 경영자로 평가받아 왔다.

중흥그룹은 “창업주의 뜻을 이어 안정적인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유족으로는 부인 안양임씨와 아들 정원주(중흥그룹 부회장·대우건설 회장)·원철씨(시티건설 회장), 딸 향미씨, 사위 김보현씨(대우건설 사장)가 있다.

빈소는 광주시 서구 매월동 VIP장례타운에 마련됐다. 발인은 5일 오전 7시 30분. 전남 화순 개천사에 임시 안장된 뒤 장지는 유가족 뜻에 따라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mailto:aura@gwangnam.co.kr)

## 전남도, 이언주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초청 강연

### ‘국제질서 대전환과 지역 미래’ 전남포럼서 발전 방향 모색

전남도는 3일 도청 왕인실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초청해 ‘국제질서 대전환과 전남의 미래’를 주제로 제301회 전남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선 공무원과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국제질서 대전환 시기에 전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은 “지금 한국경제는 에너지·첨단산업·통상구조의 3축이 재편되는 변곡점에 서 있다”며 “첨단기술과 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곧 미래 성장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넓은 부지를 기반으로 AI·에너지 분야에 선도적 투자를 단행해 국가 첨단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남도는 3일 도청 왕인실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초청해 ‘국제질서 대전환과 전남의 미래’를 주제로 제301회 전남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 앞서 이 수석최고위원은 솔라시도를 방문해 국가 AI컴퓨팅 센터 등 데이터센터파크가 들어서게 될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후보지 현장을 살폈다. 솔라시도는 영암호·금호호·영산강호의 풍부한 용수공급과 154kW(2027년), 345kW

(2029년)의 기저전력 확보를 비롯해 태양광 5.4GW(2030년), 해상풍력 12.1GW(2035년) 등 17.5GW의 재생에너지를 통해 데이터, 반도체 등 전력 인프라를 기반으로 첨단전략 핵심기지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삼성SDS 컨소시엄이 2028년까지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건설할 예정이며,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한전 KDN이 AI를 활용해 에너지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mailto:gnnews1@gwangnam.co.kr)



남도풍경연구소(소장 최근영)는 지난 2일 나주시청 소회의실에서 나주시(시장 윤병태)의 자연·문화·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기록·확산하고 ‘나주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남도풍경연구소, 나주 방문의 해 성공 ‘맞손’

#### 관광자원 사진 콘텐츠로 기록…관광 홍보 등 적극 활용

남도풍경연구소(소장 최근영)는 지난 2일 나주시청 소회의실에서 나주시(시장 윤병태)의 자연·문화·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기록·확산하고 ‘나주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남도풍경연구소는 나주시의 영산강 정원과 꽃단지, 자연경관, 문화행사 등 지역의 주요 관광자원을 사진 콘텐츠로 기록하고 관리하고, 나주시는 남도풍경연구소에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해 확보된 자료를 관광 홍보와 공공 기록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남도풍경연구소는 나주시의 주요 관광지와 각종 행사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기록하고, 사진전 개최, SNS

홍보, 시민 체험 프로그램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제작되는 사진 콘텐츠는 관광 홍보, 언론 제공, 공공 홍보물 제작 등 나주시의 공적 홍보 영역에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남도풍경연구소 최근영 소장은 8200여 명의 회원들이 실시간 공유한 광주 전남 전북지역의 풍경 자료를 수도권 전문 사진출사단체 30여만의 회원들이 정보를 공유받아 남도지역을 방문하고 있기에 2026년도엔 나주 방문의 해를 맞이해 많은 방문객들이 올 수 있도록 나주지역 명소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mailto:rainidea@gwangnam.co.kr)

### 완도군-LH, 주민 주거 복지 증진 ‘맞손’

#### 업무협약 체결…노후주택 84가구에 8억 지원

완도군은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주거 급여 수급자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주민 주거 안정성 확보와 주거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주택 노후도에 따라 84가구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

본부에 통보된 174가구를 대상으로 수급·거주 여부, 장애인 가구 등을 파악해 최종 대상 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협약을 통해 군은 사업비 부담·주민들에게 정보 제공 등을 하며, LH는 사업 수행 기관으로 공사 발주·감독 등을 수행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고, 주민 생활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군은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주거 급여 수급자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LH와 협력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mailto:knk1831@gwangnam.co.kr)

#### 몽골 소아정형외과학회와 업무협약

#### 조선대병원, 의료·학술 분야 교류 확대

조선대학교병원은 최근 몽골 소아정형외과학회와 의료·학술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조선대학교병원과 몽골 소아정형외과학회와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양 기관은 의료·교육·학술 전반에 걸친 협력을 증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의사 및 교수진의 상호 교류, 의사를 위한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환자 진료 의뢰 및 진료 요청 협력, 학술 심포지엄 등 학술 활동 교류, 방문 연수(Visiting Fellowship)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교류와 성과 창출을 위해 임상 경험 및 교육 역량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



조선대학교병원은 최근 몽골 소아정형외과학회와 의료·학술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진호 조선대병원장은 “이번 협약은 소아정형외과 분야에서 의료·학술 협력을 확대하는 뜻깊은 자리다”며 “임상 경험과 교육을 바탕으로 의료, 학술 교류를 활성화해 소아정형외과 의료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mailto:goback@gwangnam.co.kr)

### ‘제2회 광주활동가상’에 최낙선 상임이사 선정

#### 광주NGO시민재단, 오늘 전일빌딩 245서 시상식

(사) 광주NGO시민재단(이사장 정영일, 이하 재단)은 4일 오후 3시 전일빌딩 245 4층 시민마루에서 ‘제2회 광주활동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광주활동가상은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및 광주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공익활동가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2024년도에 제정됐다.

이번 ‘제2회 광주활동가상’ 수상자는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 10년 이상 상근 활동 경력을 가진 활동가를 대상으로, 2025년 11월 1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추천받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낙선 (사) 시민생활환경회의 상임이사(사진)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인사말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축사, 수상자 소개, 시상, 수상소감 등 순으로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상금 500만원이 지급된다.

최낙선 상임이사는 “제2회 광주활동가



시에 시민들에게는 공익활동의 소중함을 알리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상식을 주관한 정영일 이사장은 “수상자는 지난 32년 동안 환경과 생태 분야 한 길을 걸어오면서 광주를 지속가능한 환경·생태도시로 만들어가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시민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광주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mailto:sty1235@gwangnam.co.kr)



한국철도 광주본부는 북구 CGV용봉에서 ‘토닥토닥 영화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한국철도 광주본부, ‘토닥토닥 영화관’ 진행

#### 다문화가정 등 150여명…가족사진 촬영 등 선물

한국철도 광주본부는 북구 CGV용봉에서 ‘토닥토닥 영화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영화시사회 관람 기회 제공을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의 정서적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코레일 광주본부사회와 북구 여성보육과, 북구가족센터가 함께했으며, 북구 지역의 다문화·조손·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과 폭력피해자 등 150여명이 영화를 관람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평일 저녁 시간

대에 운영돼 퇴근 후 가족이 함께 영화관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관람 전에는 가족사진 촬영을 진행해 참여자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준구 한국철도 광주본부장은 “지난해 학습용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이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 관람 행사를 새롭게 마련했다. 참여자들의 호응으로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나눔활동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mailto:looks@gwangnam.co.kr)